

■ 김미현 LPGA 씬그룹 챔피언십 우승

잉스터와 연장 '싱거운 승부'

5월을 기대하러던 '슈퍼 팡공' 김미현(30·KTF)이 약속대로 우승에 목말라해온 '코리안 시스터스'에 올해 첫 승전보를 전했다.

김미현은 7일(한국시간) 오클라호마주 브로큰애로우의 시더릿지골프장(파71·6천602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씬그룹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줄리 잉스터(미국)를 연장 접전 끝에 제치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개인통산 8번째... 한국 남자군에도 시즌 첫승

동계훈련 중 스윙 바뀌 비거리 늘린게 주요

우승 상금 절반 11만달러 토네이도 피해자 돕기 성금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꿔 이븐과 71타를 친 김미현은 2언더파 69타를 친 잉스터와 공동 선두(3언더파 210타)로 3라운드를 마친 뒤 연장 첫번째 홀에서 파를 지켜내 보기에 그친 잉스터를 따돌렸다.

올 들어 7개 대회를 치르는 동안 한 번도 우승이 없어 '집단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눈총을 받아왔던 LPGA 투어 '한국 군단'의 갈등을 풀어낸 시원한 승리였다.

작년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우승 이후 10개월만에 다시 한번 LPGA 투어 정상에 선 김미현은 통산 우승컵을 모두 8개로 늘렸다.

지난 달까지 이어진 부진에 대해 "겨우내 고친 스윙이 완성되는 5월을 기대하라"고 했던 김미현은 "스윙교정의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 몰랐다"면서 "약점이던 드라이버 비거리도 많이 늘어 앞으로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하겠다"고 말했다.

우승 상금 21만 달러를 받은 김미현은 시상식 직후에 토네이도 피해자 돕기 성금으로 상금의 절반인 11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선두 4명에 1타차 공동 5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미현은 난이도가 높은 코스와 쌀쌀한 날씨로 타수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키는 골프'로 우승 사냥에 나섰다.

한때 6명이 공동 선두에 나서는 혼전 끝에 어느덧 단독 선두로 나선 김미현은 다음 달이면 만 47세가 되는 백전노장 잉스터의 추격에 흔들렸다.

잉스터는 전반에만 보기없이 버디 3개를 뽑아내며 우승 경쟁에 합류하던니 18번홀(파4)을 버디로 장식하며 김미현에 1타 뒤진 2위로 먼저 경기를 마쳤다.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친 잉스터는 데일리베스트를 기록했다.



16번홀(파4) 버디로 2타차 선두로 나섰던 김미현은 18번홀에서 파를 지키면 우승할 수 있었지만 두번째 샷을 버거로 집어넣은 데 이어 1m 퍼펙트를 놓치면서 연장전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18번홀에서 치러진 연장전은 그러나 싱겁게 끝났다.

두 선수 모두 긴장한 탓인지 두번째 샷이 그리운 벗어났다. 김미현은 홀에서 10m 가량 떨어진 프린지에서 퍼터를 사용해 1.2m 거리에 붙인 뒤 파를 지켜냈지만 그리운 홀 쪽 넘긴 잉스터는 4m 퍼펙트를 놓쳤다.

김영(27)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함께 공동 5위(1언더파 212타)를 차지해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톱 10'에 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호남유일의 양진디 골프장인 함평 다이내스티CC에서 오는 10일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 KB 스타투어 2차대회가 열린다. 코스 곳곳이 붉은 철쭉으로 아름답게 물든 함평CC는 페어웨이와 그리운 잔디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국내 정상급 여성 골퍼들 함평다이내스티에 모인다

KLPGA KB스타투어 2차대회 10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 2007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4개월 푸른 양진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를 완벽하게 치러낸 양진디 코스를 갖춘 함평다이내스티CC(파 72·6천297야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린과 페어웨이 정비를 모두 마치고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9월 프로암대회를 시작으로 10~12월까지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펼쳐질 스타투어에는 국내 여자골프 1인자 신지애(19·하이마트)를 비롯해 박희영(20·이수건설)등 118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이 지역 함평골프고 출신의 신지애는 지난해 9월 열린 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에서도 어렵게 공동 3위에 머물며 우

승을 내줘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아시아드CC에서 열린 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에서 우승한 안선주(20·하이마트)는 지난해 스타투어 1차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스타투어와는 인연이 깊다. 이번 대회에서도 신지애와 더불어 우승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선수다.

이외에 문현희(24·힐라 코리아)와 홍란(21·이수건설), 지난해 신지애와 상금왕을 다했던 박희영 등도 우승을 탐내고 있는 선수들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B스타투어 대회는

올해 다섯차례...2차대회 상금 2억

'KB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는 KB국민은행이 한국여자프로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스폰서로 나서 지난해 처음 신설했다.

지난해 4차대회를 열었고, 올해는 5차대회를 치르게 된다.

올해 1차대회는 지난 4월 18~21일까지 부산아시아드CC에서 개최됐고, 2차대회는 9~12일까지 4개월 양진디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다.

3차대회는 오는 6월 20~23일까지 포항 오션힐스CC, 4차대회는 충청지역, 5차대회는 11월 7~1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 2007 KB국민은행 스타투어 일정

Table with 4 columns: 대회차수, 일자, 장소, 우승자. 1차대회: 2007.4.18~21 부산아시아드CC, 안선주(20·하이마트). 2차대회: 2007.5.9~12 함평다이내스티CC. 3차대회: 2007.6.20~23 포항오션힐스. 4차대회: 2007.10.3~6 충청지역. 5차대회: 2007.11.7~11 서울·경기지역.

에서 열린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스타투어대회 1~4차대회 상금은 각 2억원이며 5차대회 상금은 5억원이다.

지난해 KB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중

1차는 안선주(20·하이마트), 2차 문수영(23), 3차 최나연(20·SK텔레콤), 4차 임은아(24·힐라 코리아)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1차대회에는 안선주가 지난해와 같이 우승트로피를 안아 2회 우승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12일까지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리는 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를 관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이나 골프장 현장에서 입장권(1만원)을 구입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함평다이내스티CC는

잔디·주변 환경 국내 최고 수준

함평다이내스티CC는 이번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를 앞두고 지난 4월 30일부터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페어웨이와 그리운 상태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선수들이 최상의 코스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지난해 9월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당시 페어웨이와 잔디상태를 완벽하게 조성해 선수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경험을 살려 이번 대회에도 그린과 페어웨이를 경기하는데 최적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린스피드 10~10.5 피트

페어웨이 잔디 높이 20mm

그린스피드를 10~10.5피트 정도로 다듬는 등 그리운 정규 대회규정에 맞춰 놓았으며 페어웨이는 예고(刈高·잔디를 깎아 놓은 높이) 20mm를 유지하도록 손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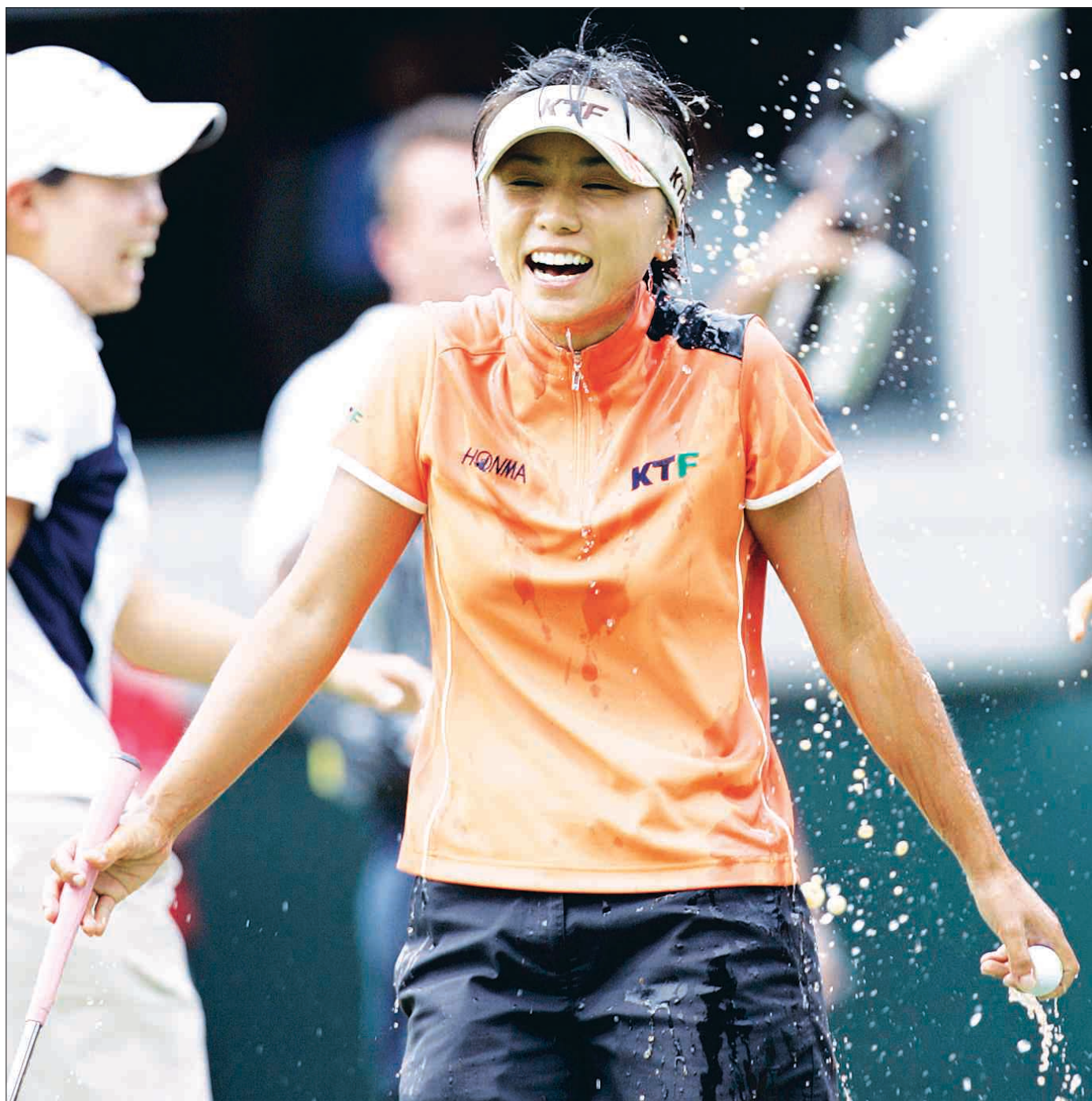
잔디 예고 20mm는 공이 잔디 안에 파묻

히지 않고 잔디 위에 떠 있게 돼 샷을 하는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다.

또한 잔디 밀도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공이 잔디 안에 밀려 들어가거나 파묻히지 않도록 했다.

한편 함평다이내스티CC는 지난 4월 30일 이번대회 준비를 위해 내장객을 받지 않고 휴장을 하면서 잔디나 그린 외에도 주변 환경까지 관리하는 등 골프장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미현이 7일 오클라호마주 브로큰애로우에서 열린 LPGA 투어 씬그룹 챔피언십 우승 후 동료 한국 LPGA 선수들로부터 물과 음료수로 축하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와코비아 챔피언십 우승...시즌 3승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3승을 올렸다.

우즈는 7일(한국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케일할로골프장(파72·7천438야드)에서 열린 와코비아챔피언십 마지막 날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5

타로 스티브 스트리커(미국·11언더파 277타)를 2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안았다. 시즌 3승이자 통산 57승.

우즈는 올 시즌 6개 대회에 출전, 이 가운데 3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획득해 50%의 승률을 올렸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합계 8언더파 280타로 공동 5위에 올라 시즌 네 번째 톱10에 들면서 신인상 후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러나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2타를 잃고 함께 1언더파 287타로 공동 24위에 그쳐 시즌 상금 100만달러 돌파는 다음 대회로 미뤘다.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합계 3오버파 291타로 공동 56위에 그쳤다.